

작품 내용

제 목	여름의 저작자들
내 용	사천 앞바다의 방파제 끝에는 이름 없는 등대가 하나 서 있다. 어릴 적 나는 그 등대를 내 것이라 여겼다. 아무도 이름을 붙이지 않았으니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고 믿었던 것이다. 열두 살의 나는 크레용으로 등대를 그렸고, 그 밑에 큼직하게 내 이름을 적었다. 000. 세상에서 처음으로 무언가에 서명을 해본 순간이었다. 그림은 부엌 냉장고에 붙었고, 나는 그것을 내 최초의 작품이라 불렀다. 그해 여름, 할머니는 그 등대를 매일 걸어 다녀 오셨다. 새벽 물때에 맞춰 미역을 넣고, 저녁이면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오래 바라보셨다. 하루는 내가 그린 등대 그림을 보시더니, 할머니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을 내미셨다. 표지가 소금기에 젖어 부풀어 오른 공책이었다. 거기엔 할머니가 평생 부르던 노래의 가사가 연필로 적혀 있었다. 물질하는 아낙들이 숨을 고르며 부르던 노래, 어디에도 악보가 없고 누구의 이름도 붙지 않은 노래였다.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우리 어무이가 부르던 걸, 내가 받아 적은 거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름 없는 것에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았다. 등대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세운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노래에 작곡가의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가락을 처음 흥얼거린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던 나의 믿음은, 실은 만든 사람을 지우는 일이기도 했다. 스무 살이 되어 나는 자율주행을 공부하는 학생이 되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코드와 데이터 사이에서 보낸다. 카메라가 읽어 들인 도로의 풍경을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그 일을 하며 나는 열두 살의 여름을 자주 떠올린다. 내가 짓는 프로그램의 첫 줄에는 언제나 다른 이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개발자들은 그것을 라이선스라고 부른다. 누군가 밤을 새워 만든 코드를 세상에 무료로 내놓으면서, 대신 이렇게 부탁한다. 마음껏 쓰되,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만은 지우지 말아 달라. MIT 라이선스라 불리는 짧은 규약의 핵심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원저작자 표시를 유지할 것. 나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할머니의 공책을 떠올렸다. 이건 내가 지은 게 아니다, 받아 적은 것이다—그 정직한 문장이 세계의 코드마다 숨어 있었다. 내가 만드는 자율주행 모델은 수많은 사람의 어깨 위에 서 있다. 도로를 촬영해한 장 한 장 이름표를 붙인 누군가, 밤을 새워 알고리즘을 증명한 누군가, 그것을 무료로 공개하며 이름만 남겨 달라 청한 누군가. 지난 학기 나는 한 공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켰다. 독일의 어느 대학이 자동차 지붕에 카메라를 얹고 도시의 골목을 수천 시간 달려 모은 사진들이었다. 신호등 하나, 자전거 한 대, 유모차를 끄는 사람 하나에 그들이 일일이 손으로 테두리를 그어 두었다. 나는 그 테두리를 밟고 서서, 우리 도로를 달릴 눈을 만들었다. 폴더 맨 밑에는 언제나 라이선스 파일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나의 코드가 완성될 때, 그것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얼굴도 모르는 저작자들의 이름이 겹겹이 쌓여 있다. 저작권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그 겹을 헤아리는 일이다. 내가 딛고 선 것이 팬텀이 아니라 누군가의 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일이다.

요즘 나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시대를 산다. 사람들은 묻는다. 기계가 만든 것에도 저작자가 있느냐고. 나는 오히려 반대로 묻고 싶다. 기계는 대체 무엇을 먹고 그것을 배웠느냐고. 인공지능이 삼킨 수억 장의 그림 뒤에는, 자기 화실에서 홀로 붓을 든 화가들이 있다. 인공지능이 흉내 내는 문장 뒤에는, 원고지 앞에서 밤을 지새운 작가들이 있다. 편리한 결과물 앞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잊는 것은, 그 편리함이 누군가의 평생을 갈아 넣어 얻어졌다는 사실이다. 발견한 사람이 임자라던 열두 살의 오해가, 이제는 시대 전체의 오해가 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학업과 함께 작은 개인사업체를 꾸리고 있다. 처음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을 올리던 날, 도장을 찍는 손이 조금 떨렸던 기억이 난다. 그 붉은 인주 자국은 냉장고에 붙였던 크레용 서명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서명을 할 때마다 나는 그 무게를 생각한다. 서명은 권리의 주장이면서 동시에 책임의 선언이다. 내 이름을 걸었으니, 이것의 잘잘못은 내가 진다는 약속이다. 저작권이란 결국 그 서명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이걸 내가 만든 것이라 말할 권리, 그리고 남이 만든 것 앞에서는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예의. 권리와 예의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다.

지난여름, 나는 오랜만에 사천에 내려가 그 방파제를 다시 걸었다. 등대는 여전히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 저 등대에도 도면을 그린 사람이 있고, 콘크리트를 부은 손이 있고, 밤 바다에 처음 불을 밝힌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이름이 남지 않았을 뿐, 지은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다.

할머니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다. 소금기에 절었던 그 공책은 이제 내 책상 서랍에 있다. 나는 가끔 그것을 펼쳐 할머니가 받아 적은 노래를 읽는다. 언젠가 나는 그 가락을 악보로 옮기고, 맨 아래에 이렇게 적을 것이다. 채보 000, 원작자 미상, 물질하던 어느 아낙. 그것이 내가 배운 저작권의 전부다. 만든 사람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 이름이 지워졌다면, 지워졌다는 사실만이라도 정직하게 남겨 두는 것.

나는 오늘도 코드의 첫 줄에 다른 이의 이름을 적으며 하루를 연다. 그 이름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다. 열두 살의 여름부터 지금까지, 나는 무수한 저작자들의 어깨를 밟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언젠가 내 이름도, 누군가 딛고 설 어깨가 되기를 바란다. 지워지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가, 이걸 온전히 내가 지은 게 아니라고 한 번쯤 정직하게 말해 준다면—그것으로 충분하다.